

여야, 새만금 잼버리에 '네 탓 공방'... "부실준비" vs "뭘했나"

여당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부실한 준비로 위기"

민주 "세계 잼버리 좌초 위기... 윤 정부는 뭘했나"

여야는 5일 폭염 대책 미비와 관리 부실로 논란이 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부실준비"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외화내빈식 부실 준비로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되자마자 운영비 환자가 속출하는 등 부실 준비와 운영미숙이 지적받고 있다"며 "사실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했으며 이듬해에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다"며 "잼버리 유치에 앞장선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잼버리 유치와 관련 예산증액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제

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2020년 7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책임을 맡고 있다"며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서 배수 문제와 폭염문제가 이미 지적됐다. 당시 전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무를 심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잼버리장 위생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유치 후 6년 동안 투입된 예산 1000억원이 적절히 사용됐는지도 의심되는 실정"이라며 "임기 내내 잼버리에 대한 관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와 잼버리 유치부터 행사 준비 및 운영의 중심에서 잼버리를 자신의 치적 알리기에 적극 활용했던 전북도 전현직 지사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국제행사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도 등이 주도해 온 기존 행사 운영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소속당 전현직 전북지사의 무책임한 작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새만금 잼버리 정쟁화'에 맞서 남은 일정 동안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차후 개최할 국제 행사에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좌초위기를 맞은 건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며 수습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손대는 일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있다"며 "잼버리 대회를 좌초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꿈과 희망 속에서 펼쳐져야 할 세계잼버리대회가 악몽과 사고로 점철될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영국 대표단이 이어 미국, 벨기에 대표단이 철수하기로 했다"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조기 종료를 권고한 가운데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 시작부터 폭염에 대한 대책 미

비가 이미 지적됐는데, 현재 온열 질환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며 "또 배수와 부대시설 등 준비 부실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와 부상 우려로 개영식을 포함한 일정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 당국과 주최측에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뒤늦게 부랴부랴 지원에 나섰지만 대회는 좌초될 위기"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스카우트연맹을 밀어내고 대회 준비를 주도한 것은 정부"라며 "그러나 공동위원장이 5명인 관계로 의사결정도 제대로 안되고 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전가의 보도인 전 정부 탓까지 꺼내들며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참가국 외교관들이 자국민 안전을 우려하며 항의하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만든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수십년 동안 어렵게 세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좌초 위기의 세계잼버리대회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리더십 중 가장 중요한 최고는 국

가 위기 관리 능력"이라며 잼버리 대회의 즉각 중단을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참가대원들은 폭염 등에 쓰러져가지만 여가부장관은 에어콘 빵빵, 총리는 정부주관행사? 처음부터 정부 주관행사. 5인 공동위원장은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책임 전가하려 이런 쇼하면 국내에선 통하지만 국제적으로 통하겠느냐"며 "세계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세계 청소년 4만5000여명이 참가한 잼버리 대회는 폭염과 관리 부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영국팀 4500여명은 5일 철수했다. 미국도 철수를 결정한 상태다. 세계스카우트연맹까지 중단을 권고해 잼버리가 사실상 위기에 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전북 부안 잼버리 프레스룸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잼버리 운영 일정과 관련해 오늘 각국 대표단 회의를 열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에 배치된 콜링버스 130대 외에 104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국방부는 1124명의 그늘막과 캐노피 64동을 설치했다. 의료 인력으로는 의사 28명, 간호사 18명, 행정지원 인력 2명 등 총 60명이 추가 투입됐다.

정부는 샤워시설 등 현장 시설 청결 유지를 위해 이날부터 700명 이상의 서비스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변용일기자**

김호진 도의원,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 청년 유출 늦출 수 있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으로 개최한 '전남 여성·가족 의제간담회'에서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이 살맛나는 전남 실현을 위해 청년 목소리가 담긴 내실 있는 정책과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전남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인 투자 등 지원 강화해야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와 함께 전남의 여성·가족 분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정책의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남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과 함께 '청년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전남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들이 떠나지 않고 전남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의 다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및 훈련기관 부재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수도권을 선택하고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비율도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현상이다"며 "전남형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지원, 교육 환경 강화 등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사회, 정부, 기업, 학교 등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번영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려면 한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박광은, 원내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단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당시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로 인한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데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어수선했던 시기였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에 오르며 단합을 강조하고 당 내부부터 우선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계파 경계

를 넘나들며 원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 내부를 수습해 안정화시키고 정책역량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 체제 속 민주당은 지난 5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강수를 뒀고, 지난달에는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이끌어냈다.

박 원내대표 선출 후 정책의원총회는 매주 격주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매주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도 직접 주재하며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서 피해가 속출하자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